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팬 사랑 우승으로 보답하겠다”

2022-2023 코리아리그 미디어데이... 오세일 감독·선수 결의 막강 공격진·탄탄한 수비로 3연속 PO 진출보다 더 큰 꿈 꾸다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올시즌 개막을 앞두고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하 광주도시공사) 감독이 22일 “올 시즌 목표는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이지만 더 큰 꿈에 도전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이날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리그 개막에 앞서 선수들과 함께 미디어 데이 행사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탄탄한 전력을 갖춘 광주도시공사는 올시즌 타팀의 경계 대상 1호다.

2020-2021시즌 정규리그 4위, 통합 3위를 달성했고, 2021-2022시즌에는 정규리그 2위,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력을 결과로 입증했다.

전력변화가 없어 감정으로 꼽힌다.

에이스강경민(센터백)과 김지현(레프트백), 정현희(라이트백), 송혜수(센터백), 서아루(라이트윙) 등 공격진이 굳건하다.

원선필(피트)과 베테랑 골키퍼 손민지, 박조은이 버티는 수비라인도 견재하다. 신인 김수민(레프트윙)과 나지현(라이트윙)을 영입하고 김금순(피

봇)을 재입단시켜 선수층을 보강했다.

오 감독은 “신인 김수민과 나지현, 코트에 복귀한 김금순 등을 비롯한 모든 선수가 ‘원팀’으로 몸치도록 전술훈련을 실시했다”며 “실전에 버금가는 친선 경기를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린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민서와 신인 김수민이 부상으로 전례에서 이탈한 한승미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울 정도의 기량을 선보였고, 우려가 됐던 김금순의 체력도 전성기 못지않게 회복한 점이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올시즌은 ‘절대 강자’나 ‘절대 약자’가 없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각 팀이 신인 선발, FA 선수 수혈 등을 바탕으로 전력을 고루 보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 감독은 “올 시즌 승패를 가르는 변수는 골키퍼의 활약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광주도시공사에는 박조은이나 손민지 등 기량과 실력이 검증된 골키퍼들이 견재만큼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선수들도 올 시즌 자신감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장 강경민은 “주축 선수들의 경험과 신예들의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팀이 22일 광주시체육회관에서 열린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패기가 더해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 것 같다. 후배들이 경기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기량을 맘껏 펼친다면 목표인 플레이오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시즌을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제주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했다. 22일 오후부터는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전술훈련과 조대

여고, 조대부고 팀과의 연습경기 등 마지막 훈련에 들어갔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월6일 경기 광명실내체육관에서 경기장에서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29일과 2월4일에는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부산시설공단과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두 차례 홈경기를 갖는다.

이평형 광주도시공사 선수단장(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광주도시공사 선수들이 부상 없이 올시즌을 치러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길 희망한다”며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시체육회는 선수들이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은서



이고은

AI페퍼스 이고은·박은서 올스타 선정

‘월드 스타’ 김연경 남녀 1위

1년 만에 국내 복귀한 ‘월드 스타’ 김연경(흥국생명)이 프로배구 2022-2023 V리그 올스타전 팬 투표에서 남녀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광주 AI페퍼스 이고은과 박은서도 올스타에 뽑혔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2일 올스타전에 출전할 40명의 선수를 공개했다.

김연경은 12일부터 18일까지 KOVO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온라인 팬 투표에서 8만 2297표를 획득하면서 남자부 신영석(한국전력·6만9006표)을 밀려잡고 따돌리고 최다 득표의 영예를 안았다.

김연경은 여자부 ‘M스타’팀의 일원으로 올스타전 무대를 밟는다.

지난 시즌 중국 리그에서 팀 김연경은 올 시즌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구름 관중을 끌어 모으고 있다. 그는 올스타 팬 투표에서도 변함 없는 인기를 과시했다.

베테랑 미들 블로커 신영석은 3년 연속 남자부 최다 득표 1위와 개인 통산 4번째 남자부 최다 득표 1위를 차지했다.

광주 AI페퍼스 이고은은 6만3225표(6위)

를 얻어 ‘M스타’에 합류했다.

박은서는 4만4370표를 받아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됐다.

여자부 최다 득표 2위는 현대건설 미들 블로커 양효진(6만2890표), 남자부 최다 득표 2위는 대한항공 미들 블로커 김민재(6만8433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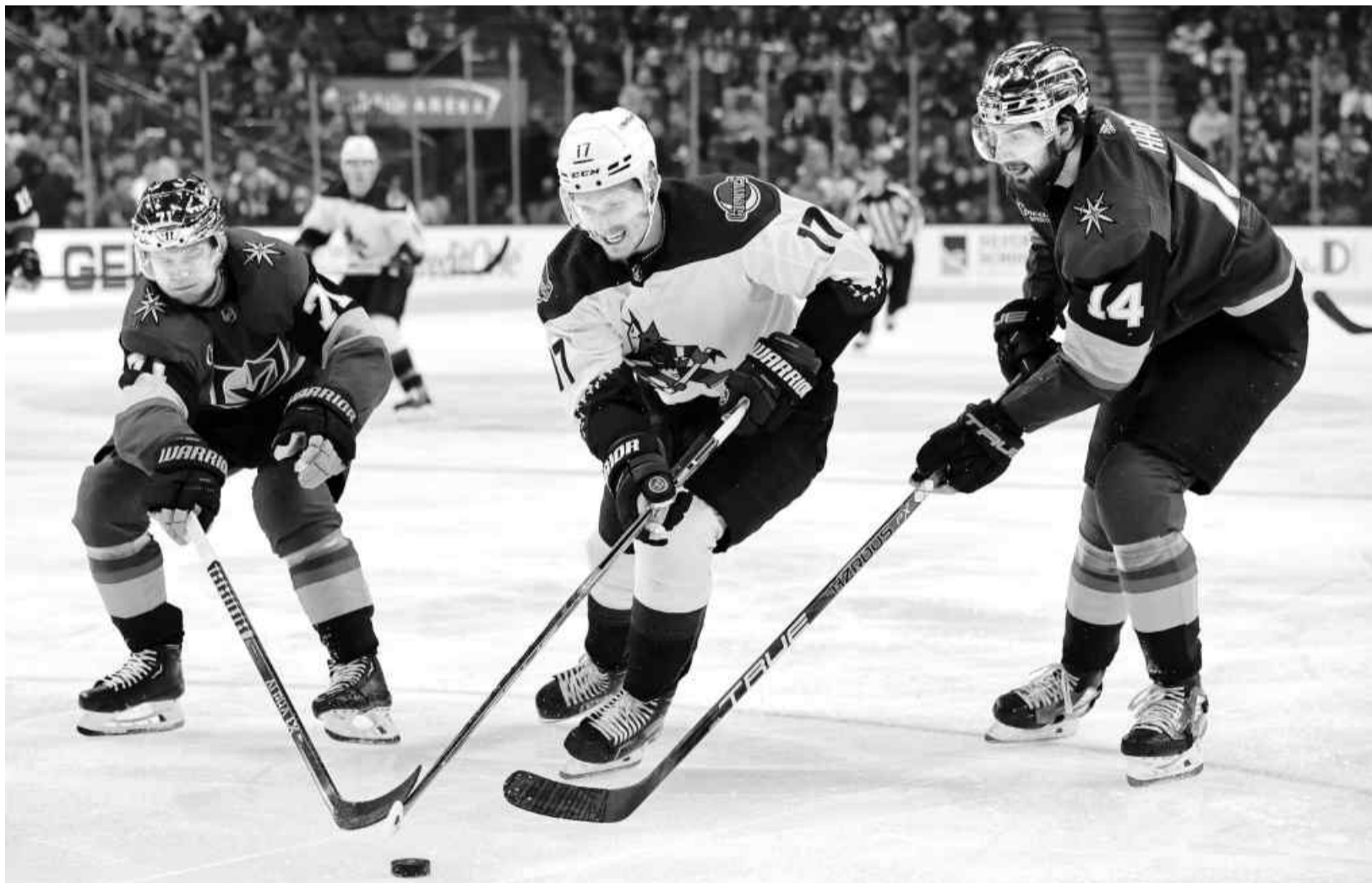
5만1387표를 얻어 M스타팀에 합류한 흥국생명 베테랑 리베로 김해란은 개인 통산 15번째 올스타전에 나선다. 이는 남녀부 통합 역대 최다 기록이다.

남자부 M스타팀 세트 한선수(대한항공) 또한 12번째 올스타전에 참가한다. 남자부 역대 최다 올스타 참가 기록은 여우현(현대캐피탈)의 13회다.

이번 올스타전은 내년 1월 2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리며 남녀부는 각각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M스타’팀과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Z스타’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치른다.

KOVO는 팬 투표로 각 팀 7명의 올스타 선수를 선발했으며 전문위원회 추천을 통해 총 12명을 추가로 뽑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뺏기면 안돼... 에리조나 코요테스의 닉 뷰스태드(가운데)가 21일 미국 네바다주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1피리어드에서 라스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선수들과 퍽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여자 유로’ 우승 이끈 미드, BBC 올해의 선수 선정

잉글랜드의 2022 여자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여자 유로 2022) 우승에 앞장선 베스 미드(27·아스널)가 여자 축구 선수로는 처음으로 BBC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영국 방송 BBC는 미드를 2022년도 올해의 선수로 선정했다고 22일(한국시간) 밝혔다.

미드는 지난 7월 잉글랜드에서 개최된 여자 유로 2022에서 잉글랜드 여자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일구는 데 앞장섰다. 6골 5도움을 터뜨리며 득점왕에게 주는 골든부

트를 받았고, 대회 최우수선수로도 선정됐다.

1954년 제정된 BBC 올해의 선수상은 영국 스포츠계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스포츠상 중 하나다.

경마부터 크리켓, 축구까지 종목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시상하는데, 여자 축구선수가 이 상을 받은 것은 미드가 처음이다.

또 남녀를 통틀어 축구선수가 이 상을 받은 것은 2009년 라이언 기스가 마지막이었다.

기스는 당시 2008-2009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정규리그와 리그컵 우승, ‘더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미드는 이날 진행된 시상식에서 “내가 몇 골을 넣기는 했지만, 동료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 상을 받게 돼 무한히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아바타: 물의 길, 올빼미
- 2관 아바타: 물의 길
- 3관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 4관 영웅
- 5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눈의 여왕: 스노우 프린세스와 미래랜드의 비밀
- 6관 아바타: 물의 길,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 9관 영웅, 신비아파트 극장판 차원도깨비와 7개의 세계
- 7관 세네카를 올빼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 8관 세네카를 아바타: 물의 길,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 2: 원더스타 콘서트 대작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발레단 제133회 정기공연

호두까기인형

일시 : 2022-12-21(수) ~ 2022-12-25(일)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문의 : 062-522-8716

